

- 주요 뉴스: 미국 재무장관 美中 정상회담 가능할 전망 섣달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통화정책 결정 시 증가하는 노동시장 위험 고려
 - 미국 트럼프, 가자지구 전쟁 마침내 종료,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불참
 - 중국 9월 수출, 예상치 상회.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수출 다변화 노력이 효과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美中 무역 갈등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상승[+1.6%], 달러화 강세[+0.3%], 독일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트럼프의 對中 유화 메시지, AI 및 반도체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광산 및 자원 관련주 매수 증가하며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美中 무역 긴장 완화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7% 하락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
독일은 美中 관계 개선 기대로 전일의 낙폭 줄어들며 1bp 하락으로 마감
- ※ 뉴욕 1M NDF 증가 1424.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6.7원, 0.06% 상승). 한국 CDS 강보합

		10/13일	10/10일	전일대비			10/13일	10/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654.7	6,552.5	+1.56%	국제 금리 10y	미국	휴장	4.03%	-
	유럽	566.63	564.16	+0.44%		독일	2.64%	2.64%	-1bp
	중국	3,889.5	3,897.0	-0.19%		영국	4.66%	4.68%	-2bp
	일본	휴장	48,089	-	CDS 5y	한국	25bp	25bp	+0bp
	한국	3,584.6	3,610.6	-0.72%		중국	45bp	46bp	-1bp
	달러지수	99.24	98.98	+0.27%	위험 지표	EMBI+	-	302	-
유로화	1.1570	1.1619	-0.42%	VIX		19.03	21.66	-12.14%	
환율	엔화	152.28	151.19	-0.72%		WTI유	59.49	58.90	+1.00%
	위안화	7.1309	7.1353	+0.06%	원자재	구리	514.4	489.4	+5.11%
	원화	1,425.8	1,421.0	-0.34%		금	4,110.3	4,017.8	+2.3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재무장관, 美中 정상회담 가능할 전망. 섯다운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 베센트 장관은 10월 말 한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 또한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은 상당한 소통을 가졌으며, 긴장도 완화되었다고 언급. 아울러 11/1일 전에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참언
- 다만 중국이 자유세계 전체의 공급망과 산업을 공격했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생각은 없다고 강조. 중국의 규제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 중국 측도 이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동등하거나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
- 한편, 연방정부 섯다운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평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고 발언. 또한 지금까지 발표가 미뤄진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연방정부의 정상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통화정책 결정 시 증가하는 노동시장 위험 고려

- 폴슨 총재는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 오히려 노동시장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중심에 두고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일부 언론은 이번 발언을 연내 2회의 추가 금리인하를 선호한다는 의미로 해석

■ 미국 트럼프, 가자지구 전쟁 마침내 종료.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불참

-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와 튀르키예 대통령 등과 함께 '가자평화선언'에 서명.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등 2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가자지구 평화 구성의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
- 이날 회의에 유럽 다수의 주요국 정상이 참여했으나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불참. 이에 일부에서는 실효성 여부에 의구심 표명

■ JPMorgan, 향후 10년 방위·우주·AI 등 첨단 산업에 최대 1.5조달러 투자

- 향후 10년간 방위 및 항공우주, AI 및 양자컴퓨팅, 에너지 기술 등 주요 분야에 최대 1.5조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10년 이티셔티브' 계획을 발표. 이는 상업적 목적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고통스러웠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

■ 중국 9월 수출, 예상치 상회.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수출 다변화 노력이 효과

- 달러화 기준 9월 수출은 3285.7억달러로 전년동월비 8.3% 증가하여 예상치(6.0%) 상회. 수입 역시 2381.2억달러로 전년동월비 7.4% 늘어나 예상치(1.5%) 대비 높은 수준. 이번 결과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시장 다변화 등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 이러한 수출 안정성은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
- 일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향후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을 통제할 전망. 해당 품목은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제조에 사용되며, 일부에서는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

■ 영란은행 그린 위원, 당분간 현행 금리 수준 유지 고려.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

- 그린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적어도 내년 3월까지의 금리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 현재 시장에서는 영란은행이 내년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편

■ OPEC, 원유시장의 공급 우위 지속될 전망. 수요과 공급의 동시 증가 예상

- 월간 보고서를 통해 기준과 마찬가지로 금년과 내년 일일 석유 수요가 각각 130만배럴, 14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추산. 다만 OPEC+의 원유 공급도 함께 증가하여 내년 역시 공급 우위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14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연준 파월 의장, 월러 이사 및 보우먼 이사 발언
- 독일 9월 소비자물가 및 10월 ZEW 경기기대지수, 영국 7~9월 실업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무리한 금리인하, 일본과 같은 좀비 경제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A Zombie Economy Could Be America's Future)

- 미국 경제는 향후 십년간 이자율 상승과 AI 영향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 10년물 국채 금리는 팬데믹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부채 및 모기지 상황 부담, 기업의 대출상환 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AI 활용이 당초 기대한 경제 혁신이 아닌,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이러한 상황이 심화된다면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수익률곡선제어(YCC) 시도가 정당화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실제로 일본의 경우 인위적 금리인하 시도의 과도한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초래. 구체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좀비기업 양산, 인플레이션 재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 미국 주가의 상승, 높은 기업이익 성장 기대 등으로 닷컴 버블과는 다른 양상 - 블룸버그

(This Market Is Nothing Like the Dot-Com Bubble)

-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고용 둔화, 관세 문제, 섯다운 등 다양한 우려에도 AI 부문이 주도하며 사상 최고치. 이에 일부에서는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재현 가능성 부각. 하지만 S&P500 기업의 95%가 내년에 평균 16%의 이익 성장을 기록할 전망.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이익은 21% 증가 예상
- 아울러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측정한 S&P500 기업의 연간 수익성은 지난 4년간 약 18%로 1991년 이후 최고 수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의 절반에 불과. 절대적 기준의 시장 가치는 닷컴 버블 시기 정점에 가깝지만, 높은 성장 기대를 감안할 때 미국 증시의 거품 논란은 시기상조일 가능성

■ 미국 AI 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익 부진 시 채무불이행 증가할 소지 - Financial Times

(Measuring risk in the AI financing boom)

- AI 붐으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등에 막대한 글로벌 자금이 유입. 그러나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신생 스타트업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할 사안
- 또한 연관 기업들이 상호 간 투자 등으로 의존성이 높은 상황. 이는 수익성 악화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 등 연쇄적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 특히,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현실화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과잉 투자는 경계할 필요

■ **미국계 은행, 양호한 3/4분기 실적 예상되나 연체 증가 등은 경계 요인 - WSJ**

(Banks Poised for Strong Third Quarter, But Yellow Flags on Consumer Health Loom)

- 은행들은 투자, 트레이딩, 자산운용 부문의 영업활동이 늘어나며 3/4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예고(J.P. Morgan). IPO(기업공개) 부문의 성과도 매우 좋은 편. 하지만, 다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잠재적 위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첫째, 연방정부 섷다운으로 인한 일부 IPO 지연
- 둘째, 학자금·자동차 대출 연체율 및 기업 파산 증가. 셋째, 분기 후반 소비자 지출 증가세 둔화(7,8월 4~5%→9월 3%). 넷째, 저소득 가구의 물가 부담 및 노동 시장의 완만한 둔화 가능성 등. 이러한 현상이 아직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악화될 경우 은행 수익에 부정적 영향 미칠 소지(Raymond James)

■ **미국의 트럼프식 고립주의, 동맹국과의 협력 등에서 한계 노출 - Financial Times**

(The limits of the 'Donroe doctrine')

■ **미국의 對中 관세위협, 중국의 맞대응 강화 등 오히려 역효과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The Curious Market Timing of Trump's Tariff Thre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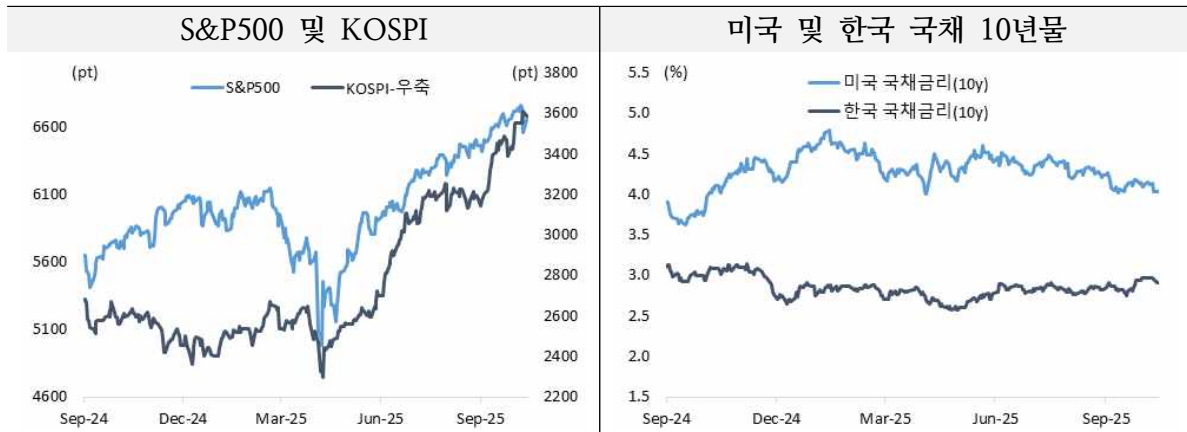
■ **미국 트럼프의 중동 평화 추진, 하마스의 존립 등으로 난관 예상 - Financial Times**

(Why peace in the Middle East may still be elus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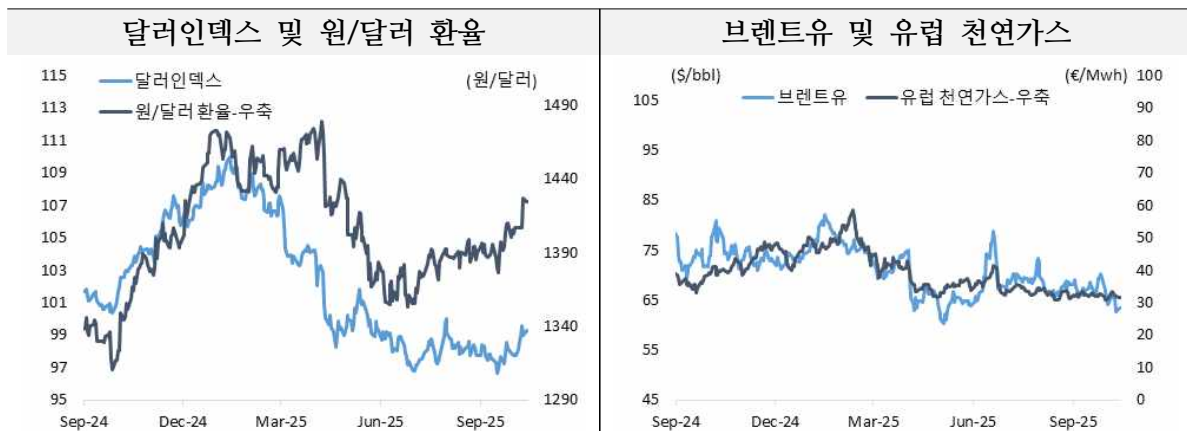
■ **신흥시장, 경제 성장 등으로 선진국과 경계가 모호, 투자 구분에 재평가 요구 - 블룸버그**

(It's Time Emerging Markets Come In From the Cold)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